

# 강기갑 대표 사퇴... 통합진보 분당 '엑소더스'

## “모두가 내탓”... 국민참여계 당원 3000여명 오늘 탈당계 제출

통합진보당 강기갑 대표가 10일 탈당을 선언하고 대표직에서 물러나면서 본격적인 분당 '엑소더스'가 시작됐다.

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모두가 제 탓으로 모든 것이 지나간 지금 그동안 당원동지들과 함께했던 행복한 지난날을 기억하며 이제 민주노동당에 이어서 온 통합진보당의 당적을 내려놓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혁신은 실패했고 쉼 수 없이 많은 당원이 이 당을 떠나갔고 당의 근본인 노동자들이 지지를 철회했고 농어민 빈민들의 지지 철회도 이어지고 있다”며 “혁신과 단결이라는 양팔을 펼쳐며 최선의 노력을 다 했지만 결국 분당이라는 최악의 사태까지 이르렀다”고 말했다.

그는 당에 남은 구당권과를 향해 “이제부터라도 서로에 대한 대립과 반목을 내려놓아야 한다”면서 “국민 대중의 기본적 상식의 범주 안에서 선의의 경쟁을 통하여 검증받고 성장해 인젠가는 진보의 역사 속에 다시 만날 것을 기약하자”고 당부했다.

이 같은 강 대표의 선도 탈당을 계기로 신당권과 소속 의원들과 각 계파도 발걸음이 빨라졌다.

강동원 노회찬 심상정 등 지역구 의원 3명도 조만간 탈당 의사를 밝히고, 이미 탈당한 박원석 정진후 서기호 김계남 등 비례대표 의원 4명과 함께 새로운 진보정당 창당 세력에 합류할 예정이다.

국민참여계 당원 3000여명은 11일께 탈

당계를 당에 낼 계획이다. 탈당계를 자체적으로 모아놓을 정도로 분당에 가장 적극적이었던 국민참여계는 그동안 적절한 시기를 저울질해오다 이날 강 대표의 선언을 계기로 각 계파 중 가장 먼저 당을 떠나기로 했다.

인천연합, 통합연대 등 계파는 집단 탈당보다는 지도부의 지점을 통해 지역별로 개별 탈당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한편, 강기갑 대표 사퇴로 공석이 된 대표 자리는 민병렬 최고위원이 승계했다. 통합진보당은 이날 오후 민병렬, 이해선, 유선희 최고위원과 오병운 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10차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민병렬 최고위원을 당 대표 직무대행으로 의결하는 등 당 정상화 조치 방안을 심의, 의결했다.

아울러 통합진보당은 지난 7일 처리된 비례위원의 제명과 관련해 무효 확인 소송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서울 남부지법에 내기로 했다.

통합진보당은 평당원이 떠나는 것은 막을 수 없다더라도, 비례대표 국회의원은 모든 당원의 뜻에 따라 당선된 만큼 사퇴는 몰라도 편법을 통한 일방적인 탈당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통합진보당 관계자는 “강 대표의 사퇴로 통합진보당의 분당은 현실화됐다”며 “하지만 비례대표 제명 처리와 관련, 상호 간의 감정싸움이 격화된다면 진보 진영의 미래는 더욱 참담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통합진보당 강기갑 대표가 10일 국회 정문관에서 최근 분당사태를 해결하지 못한 것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퇴하고 고향으로 돌아간다는 기자회견을 하고 나서 사퇴의 큰절을 하고 있다. /연필뉴스

## ■국회 대정부질문

박근혜 조카가족 부당이득 의혹

### 장병완 의원 “주가조작 40억 행했다”

김석동 “확인해보겠다”... 금감원, 내부자거래 조사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 후보의 조카 가족이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주가조작과 허위공시로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새누리당 장병완 의원은 10일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자동차 부품 생산기업 대우신소재의 최대주주인 박영우 회장(박근혜 후보 조카사위)과 아내 한유진씨 등이 대선 후보 테마 주로 급등한 이 회사의 주식 수백만 주를 처분해 40억원의 행적을 과정에서 주가조작과 허위공시를 한 혐의에 대한 근거자료를 제시했다.

장 의원은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박 회장 등은 대우신소재가 박근혜 테마 주로 편입된 이후 주가가 세 배가량 급등하자 지난 2월 적자전환 공시 발표 직전 한 주당 3500원대에 총 227만주를 팔아 현금 80억원을 확보했다는 것이다.

박 회장 일가는 지난 8월 월간 유상증자를 실시, 매도가격의 3분의1에 불과한 1260원에 320만주(40억원 상당)를 사

들여 결과적으로 55만 주의 보유주식을 늘리고 40억원의 차익을 챙겼다. 이 과정에서 박 회장 일가는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주가조작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 회장 일가는 대우신소재가 지난 2월 20일 최고점을 찍기 직전인 같은 달 10일 단 하루 만에 227만 주를 주당 3500원대에 팔았으며, 같은 달 13일 대우신소재는 적자전환 공시를 하게 되고 주가는 큰 폭으로 떨어졌다.

이에 대해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이날 “사실 관계나 내용에 대해 금융감독원 등을 통해 확인해보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또 금융감독원은 박영우 대우신소재 회장 부부 등이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불공정 거래를 했는지 여부를 조사 중이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경제민주화·부자감세 공방

## 새누리, 경쟁력 해치는 경제민주화 안돼 민주, 감세정책 대기업 집중 국민 속인것

10일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선 연말 대선의 주요 쟁점 중 하나인 경제민주화를 놓고 여·야간 설전이 오갔다. 특히 여·야는 이명박 정부의 부자 감세 정책을 놓고도 공방을 벌였다.

경제민주화 공방=새누리당 의원들은 재벌의 불공정거래 관행을 없애기 위해 정부에 적극적 규제를 주문하면서도 경제민주화와 논의가 대기업의 경쟁력을 훼손시켜서는 안 된다고 선을 그었다.

새누리당 유일호 의원은 “대기업의 불공정 행위로 인한 피해를 어떤 방식으로든 고쳐야 하지만 경제민주화를 너무 과거에서 해서 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켜서는 안 된다”며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이 경제민주화의 목표”라고 말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재벌 문제를 직접 거론하며 여당의 의도와 시각차를 보였다.

민주당 김진표 의원은 “국민은 여당의 경제민주화 입장에 헛갈리고 어리둥절해 하고 있다”며 “새누리당이 경제민주화에

진정성이 있다면 출자총액제한제 재도입, 순환출자구조 금지, 불공정 하도급 개선 등을 즉각 입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부자 감세 논란=민주당 홍준호 의원은 “2008년 대대적인 감세정책의 혜택이 부자와 대기업에만 집중됐다”며 “이 정부 들어 추진한 감세의 약 70% 가까로 혜택이 서민들에게 돌아 간다”는 이명박 대통령의 발언(2009년 6월15일 라디오연설)은 사실과 다르고 국민을 속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새누리당 유일호 의원은 “소위 부자 감세를 하지 않은 정부가 이명박 정부”라며 “국민의 정부에서 전 계층에서 소득세를 10%를 낮춤으로써 고소득층이 가장 큰 감세 혜택(4%포인트)을 봤. 참여정부에서도 전 소득계층에 1%P 감세 혜택이 돌아갔다”고 정권별 감세 현황을 거론하며 이명박 정부의 부자 감세 논란에 반박했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 교육현장 목소리 듣는다 이용섭 의원 정책간담회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가 민주통합당 정책위의장인 이용섭 의원은 11일 교육정책 개발 및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지역 교장단과의 정책간담회를 실시한다.



이용섭 의원은 이날 오후 광주시 광산구 수완동 세종고등학교에서 지역 24개교 중·고등학교교장과 정책간담회를 가진다. 이어 월봉초등학교에서 22개교 초등학교교장과 간담회를 갖는다. 이 의원은 “21세기 교육은 국민과 산업현장의 수요를 충족시켜주는 방향으로 바뀌어야 한다”며 “교육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것이야말로 바람직한 교육정책 수립을 위한 최우선 과제”라고 정책간담회 개최 배경을 설명했다. /이종행기자 golee@

## 시의회, ‘갬코’ 관련 강시장 본회의 출석 요구

시·도의회, 임시회 개최

광주시의회(의장 조호권)와 전남도의회(의장 김재무)가 잇따라 회기에 들어간다. 광주시의회는 10일 오전 제211회 임시회 개최식을 열고 오는 21일까지 12일간 회기 일정을 시작한다.

이날 열린 임시회 개최식에서는 3D컨버팅(입체영상 변환) 분야 한미합작법인 ‘갬코’와 관련해 시의회 행정사무조사특위 증인 불출석 문제가 집중 거론됐다.

조호권 광주시의장은 개최사를 통해 “광주시 투자유치사업에 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 핵심 증인들이 출석하지 않은 것은 시의회의 가장 기본적인 역할인 견제와 감시 기능을 무력화하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조 의장은 “이번 사안의 본질은 기술택트의 결과가 아니라 정책결정 및 추진 과정에서 나왔던 부적절한 행정절차, 그에 따른 책임과 향후 재발 방지대책을 내놓는 것”이라며 “행정사무조사가 원활히 진행되도록 조사활동에 보다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상철 행정사무조사특위 위원장도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갬코사건 관련 조사활동을 위한 출석요구에 강은태 시장 등 핵심증인이 불응하는 것은 시민과 의회를 경시하는 태도”라며 “광주시가 의회의 결정을 또 다른 잘못으로 덮으려는 우를 범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지적했다.

광주시의회는 강은태 시장을 오는 19일 본회의에 출석시켜 ‘갬코’와 관련한 시정

질문을 할 계획이다. 또한, 이번 임시회에서는 시민생활과 직결된 조례안 17건과 결의안 2건, 의견청취 1건 등 총 20건의 일반 안건처리와 전주연(민노·비례)·이춘문(민주·서구 1)·정희곤(교육·북구)·강은미(민노·서구 4) 의원의 시정 및 교육정책 전반에 관한 시정 질의가 이어질 예정이다.

전남도의회는 12일 개최식을 시작으로 행정사무조사 시기를 결정하고 태풍 피해 현장 등을 방문한다.

또 자연환경보전조례와 전남도친환경구매촉진에관한조례, 부도공공건물 임대주택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개정 등의 조례안 개정을 심의한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 다와부동산 재테크컨설팅

㈜다와부동산 컨설팅부, 매수신청대리업체(법원인가) 입찰에서 명도, 등기, 양도신고까지(무료상담)

### 근린시설 / 근린주택

▷ 서구 풍암동 2중주거 4층상가주택 대지218㎡ 건물440㎡ 감정가4억2천 최저가2억9천5백

### 단독주택

▷ 서구 봉성동 2중주거 2층단독주택 대지158㎡ 건물150㎡ 감정가1억7천7백 최저가1억2천4백

▷ 동구 지산동 주거지역 2층단독주택 대지165㎡ 건물172㎡ 감정가1억1천5백 최저가78천

▷ 화순 능주면 2중주거 2층단독주택 대지400㎡ 건물230㎡ 감정가1억2천2백 최저가19천7백

▷ 장성 황룡면 관리지역 단독주택 대지823㎡ 건물235㎡ 감정가1억1천 최저가7천8백

### 공장

▷ 북구 용전동 대지2315㎡ 건물1543㎡ 감정가2억2천4백 최저가18억2천

▷ 장성 동화면 대지6300㎡ 건물1365㎡ 감정가14억2천 최저가16억3천5백

### 토지매매

▷ 동구 내남동 도심근교 주거지역 전원주택부지 주거환경 최상 대지750㎡ ▷ 무안 해제면 계획관리지역 마을내 전망 좋은 전1243㎡ 입야2400㎡

문의 010-4911-4989 (062-268-8949)

## 탐공인중개사

(서구광천동650-205 대림e-편한세상아파트 후문)

### 광주전역 원룸 매매 전문

서·광산·남·북·동구지역 급매물건 다양확보

1) 금호동, 먹자골목, 남향, 4층, 원6, 투6, 토지231㎡, 건물371㎡, 매5억9천만원 (보12000만원/월3900만원, 용177만㎡)

2) 화정동, 4층, 금호월드인근, 남향, 토지313㎡, 건물455㎡, 원부용18개, 매6억2천만원 (보5000만원/월610만원, 용2억1천㎡)

3) 지평동, 중심상업지역, 5층, 신축, 토지235㎡, 건물685㎡, 2층사무실, 원4, 투6, 최고급안집 (40평)매10억5천만원 (1억5000만원/월620만원, 용4억)

4) 신안동, 4층, 토지262㎡, 건물396㎡, 전남대, 원용23개, 매7억7천만원 (보1억2000만원/월760만원, 용2억2천5천㎡)

5) 신창동, 4층, 오피스텔, 원용24개, 풀옵션, 남향, 토지480㎡, 건물655㎡, 매9억 (보6500만원/월750만원, 용3억7천㎡)

6) 용암동, 4층, 원8투2, 안집, 토지231㎡, 건물430㎡, 남향, 매4억7천만원 (보2000만원/월350만원, 용1억1천㎡)

7) 수완동, 4층, 토지260㎡, 건물450㎡, 최고급안집, 안집, 1층상가, 원부용10개, 매10억5천만원 (보1억5천만원/월550만원, 용3억)

8) 용암동, 4층, 토지297㎡, 건물611㎡, 원부용19, 스피리움1, 안집별도, 매7억5천만원 (보2억/월500만원, 용1억5천㎡)

9) 용암동, 4층, 신축, 토지215㎡, 건물480㎡, 원용12개, 안집, 매5억2천 (보3000만원/월350만원, 용1억5천㎡)

10) 광천동, 재개발예정구역, 2층, 상가주택, 토지110㎡, 건물218㎡, 1층상가, 2층주택, 안집별도, 매2억3천만원 (보6000만원/월1000만원, 용900만㎡)

## 금당 공인중개사

건물매매

• 요양시설 등 적합, 화순군 도곡 대지 302평 건평 505평 4억7천  
• 충장로 수레, 대지 27 건평 30 공시가 1억9200 매도 1억7천  
• 유동로타리 대지 240 건평 818 매출 18억, 병천, 서울, 요양시설 적합 법인사업자 전 24억 전세매도가능

• 북구 화암동 땅 719평 주택 2채 있음 사할등 적합 2억4천만  
• 충장로 5가2층 상가 대지 27 건평 30 매도2억2천  
• 시내 LPG충전소 대지 1014 매출 11억95천 매도19억  
• 계림동 버스도 대지83 건평 293(6층건물)394천

### 나대지

• 충장로5가 상업지역 104평 주택은 절거해야할 원룸, 생활주택적합 공시지가 2억5600 매도2억4천  
• 중흥동 상업지역 166평 37개 코너 공시지가 4억7천 매도 5억3천  
• 계림동 상업지역 155평 공시지가 6억3300 매도 5억  
• 신안동 전남대 앞 4거리 대면업 상업지역 249평 생활주택형 오피스텔 적합 공시지가 9억 4천 매도 7억7천

• 전일주택지 담양군 고서면 150평 6500만  
• 기도원 적합 화순군 동면 산15667평 매도 2억3천  
• 공평지구 함평군 해보면 국도길 1725평 2억3천  
• 공평지구 나주시 반남면 장동지 5100평 5억

### 다세대 주택부지

• 서구 양동 양동시장 근거리 1중주거지 508평 24평형 다세대 주택 28세대 허가 매도 7억3천  
• 생촌동 2중 주거지 737평 매출 4억 매도 14억5천

### 담보용 물건

• 강원도 춘천시 집합건물중의 지하 2층 377평 법상가 34억6천 감정가 12억 9천 번인이전할 매도 5억4천만  
• 남구 송화동 산 8850평 공시지가 2억 7300 매도1억

222-4994, 010-2632-5659, 금남로5가 광고홍센터 옆

## 수완지구 상가임대

1층~7층 (20평~210평) 분할가능! 즉시입주! 시비없음! 학원/병원 편의점/약국 분양임대시 특별할인중 교환매매전문

### 상 가

3억~100억까지 교환및 매매합니다

토지/아파트/상가/기타

주)신한아이다

062)527-7600

## 랜드피아 공인중개사

상 가 임 대

각화동 홀플러스인근 병의원, 사무실 적합

\* 4~5층 각 130평  
\* 6층 110평  
보5천 / 월200만

\* 지하 140평 (임대가 및 조건조정)

### 수익성 부동산매매

랜드피아오피스텔 매매

\* 15평~29평  
9~12% 높은수익률

### 치평동 근린상가 매매

\* 매기29억~100억대  
물건다량 보유

8%~10% 수익률

010-9731-8949 (치평동랜드피아 O/P 1층)

## 광문공인중개사

☆모텔전문☆

광주 전남 전북

모텔 매매·임대 및 모텔부지 구함 상가건물 구함

### 비밀보장·매수자 다수대기중

☆ 광고물건 ☆

☆담양모텔 및 근린생활시설 대지425m2 오양병원 최적합 매9억(용5억포함,분할매기)

☆야수 화정동모텔 객실34개 매16억(용10억포함)

☆전주 우이동모텔 33억 월700만

☆점용 연차모텔 1억95천 월500만

☆신안 신축모텔 5억/월2000만

☆순천모텔 건물주직영 보송금/월세 협의후 조정

모텔기간 조하우를 쌓아온 모텔전문 부동산으로 광주·전남·전북 많은 물건 확보하고 있으며 원하시는 조건에 물건 찾아드리겠습니다.

모텔전문 광문공인중개사 062) 381-8972 010-3602-2701 (광주 서구정자동문)